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 에스플라네이드 전경. 싱가포르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대과일 두리안을 본딴다고 해서 현지에선 '두리안(The Durian)'으로도 불린다. (사진촬영: 모리 히데타카·에스플라네이드 제공)

CEO 벤슨 푸아 씨

“다양한 예술의 가치 증진” 우리와 상통
 21 문화전당, 아트센터 성공모델 확신



“우리의 미션은 시민들을 예술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이들이) 좋은 관객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9년간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통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에스플라네이드 기획’(The Esplanade Presents)이라는 브랜드가 붙은 공연은 ‘꼭 봐야 할 무대’라는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개관 이전인 1998년부터 에스플라네이드 CEO로 영입된 벤슨 푸아(53)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시민들이 예술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과 소통하지 못하는 아트센터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인연’이 많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 서울 한강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제심포지엄 등에 초청돼 광주와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문화전당(전당)의 목표가 아시아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 제안을 접했을 때 (아트센터의 수장으로) 무척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전당의 설립취지를 끝까지 잃지 않는다면 분명 아트센터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벤슨 푸아는 영국 서레이 대학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아시아태평양 공연장 연합회 회장으로 맡고 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다문화 한데 묶는 열린 예술의 場... 21 문화전당 ‘모델’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되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싱가포르 편
 <21> 에스플라네이드

Young Ones’, 맨프레드 만의 ‘Do Wah Diddy Diddy’ 등 귀에 익숙한 흘러간 팝송을 부르자 객석 여기저기서 관객들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차도르를 덮어쓴 말레이 여성, 말끔한 정장 차림의 동아시아 남성 등 인종은 다양했지만 음악을 즐기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하나였다.
 이날 공연은 에스플라네이드가 기획한 ‘오늘의 음악회’, ‘지난 60년대를 되돌아보며’(Tribute to the ‘60s)라는 테마로 열린 무대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무료공연이다. 지난 2002년 10월 개관과 동시에 하루 2차례 진행되는 음악회는 에스플라네이드를 찾은 외국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오늘의 음악회’는 에스플라네이드 위상을 잘 보여 주는 대표 브랜드이다. 싱가포르 마리나 만(灣) 입구에 들어선 에스플라네이드(Esplanade-theatres on the bay singapore)는 아시아를 상징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오는 2014년 개관예정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모델이기도 하다.
 에스플라네이드는 싱가포르 정부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아트 허브’를 내걸고 국비 6억달러(약 5200억원)를 들여 건립한 야심작이다. 싱가포르 정부가 막대한 국비를 들여가며 에스플라네이드를 건립한 이유는 다문화 국가라는 독특한 배경 때문이다. 싱가포르

1600석 홀·2000석 극장... 기획공연 70%가 무료
 고층도치 연상 2개 돔 독특... 年 800만 관광객 찾아

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다민족 커뮤니티가 존재 해 있는 데다 영국 식민지 시절 서양문화까지 섞여 있어 문화적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건립예산 때문에 ‘에스플라네이드 구상’은 초기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소수의 문화향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6억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열세낭비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게다가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만큼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될 게 뻔하다며 지역예술인들의 불만도 거셌다.
 싱가포르 정부는 다문화 통합과 지역예술의 부흥을 골자로 하는 에스플라네이드 청사진을 제시하며 시민들을 설득했다. 이 때문에 에스플라네이드는 개관 초기부터 중국, 말레이, 인도 페스티벌 등을 개최해 각 커뮤니티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는 동

시에 다른 문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기획에 주력했다. 특히 누구나 언제든지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자체 기획프로그램의 70%를 무료로 진행 하고 있다. ‘산책로’라는 뜻의 에스플라네이드를 공연장 명칭으로 사용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워니워니에도 에스플라네이드의 매력은 독특한 건축미에 있다. 에스플라네이드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2개의 돔으로 구성된 빼어난 외관 때문이다. 실제로 에스플라네이드는 개관후 연 평균 8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등 ‘달리박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에스플라네이드는 2000석 규모의 오페라극장(theatre)과 1600석의 콘서트 홀이 2개의 돔 모양으로 설계돼 있는 구조다. 2개의 돔은 콘코스홀(Concourse

Hall)로 연결돼 있으며 이곳에선 연중 무료음악회와 전시회가 열린다. 세계적인 음향컨설턴트 러셀 존슨이 설계한 콘서트홀은 천정 중앙에 음향반사판 역할을 하는 덮개(canopy)가 부착돼 인상적이다. 이는 음악회의 음향을 최적의 상태로 조절해주는 동시에 연주자들도 자신들이 공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이와함께 실내악 연주회장 오케스트라 리허설 공간으로 쓰이는 리사이틀 스튜디오(245석), 소규모 연극이나 댄스 발표장인 극장 스튜디오(220석), 말레이시아어로 창문을 의미하는 비주얼 아트 전시장인 젠델라(Jendela), 예술전용 도서관, 야외공연장, 소풍물,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있다.
 에스플라네이드의 부감독 피오나 소어(Fiona Soh)는 “세계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춘 공연장은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서고 싶어한다”면서 “펠리터 높은 공연뿐 아니라 문화와 세대, 장르를 아우르는 10여 개의 축제와 지역예술인들의 무대가 어우러져 ‘1년 365일 불 꺼지지 않는 아트센터’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싱가포르 =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지난 15일 오후 7시15분 에스플라네이드 콘코스홀, 이른 저녁식사를 마친 100여 명의 관객이 무대 앞에 모여 앉아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윽고 싱가포르에서는 꽤 유명한 가수 힐러리 프란시스(Hillary Francis)가 등장, 클리프 리처드의 ‘The

이태리소파 식탁/좌탁 30%
 11월 신상품 포함 2011 최대특별가 판매 (12월18일까지)

골드소파 모방되지 않은 오리지널 20kg골드소파
기능소파 이태리가죽과 독일기능의 최고급소파
골드식탁 국내최저가 판매, 밀라노 디자인 특허
엔틱식탁 보존판 연결로 10인용으로 간단사용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
 동구 정동 58-15 장동로터리 홍스페이스가구빌딩

홍은 수입원/직수입 → 도매가 판매(전남에 한함)
 서랍안이나 가죽이 역한 냄새가 나면 독성있는 중국산입니다.
 전국 고급가구의 90% 이상은 중국산입니다.(수입신고서 확인)
 이태리가구 전문 빌딩 400평 매장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항술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이상이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졸잔치,회갑연,송연모임,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창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